

중부일보

2016년 09월 28일 (수)
20면 지역

DMZ 가치·평화 염원 '예술전시회' 개막

캠프 그리브스 '평화의 축'展
내달 31일까지~ 사전예약 필수
정열 등 예술가 5인 작품 선봬

DMZ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화를 염원하는 예술 전시회가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공여시설인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3시 캠프 그리브스 일원에서 '평화의 축: 단절에서 소통으로(Axis of Peace : Disconnect to Connect)' 전시의 개막행사를 열고,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참여 작가, 문화예술계 인사 등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캠프 그리브스'라는 장소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극대화한 전시로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캠프 외곽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길을 시작으로, 탄약고, 탄약고 주변 외부공간 등지에서 정열, 권순관, 양만기, 김기라, 김형규 등 예술가 5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행사는 다음달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민통선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메일(heeyun@gto.or.kr)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 이어 2차 전시회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전시회에서는 캠프그리브스와 DMZ가



캠프그리브스 전경.

연합뉴스

포고 있는 이야기들, 이번 전시회의 스케치 등을 담은 영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향후 캠프 그리브스가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가치, 안보교육, 문화예술 등 활용공간으로 거듭나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 안보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공여지다.

현재 경기도는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동을 리모델링해 안보체험교육장으로 운영 중이며, 국방부로부터 관련 시설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설외형은 유지한 채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 DMZ내 유일한 체류형 관광숙박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캠프 그리브스 홈페이지(<http://dmzcamp131.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952-0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23.2 X 11.6 cm

기호일보

2016년 09월 28일 (수)
08면 수도권

민통선 옛 미군기지, 예술공간으로 탈바꿈

도 문화재생사업 일환
캠프 그리브스 전시회
평화·안보 의미 재조명

경기도는 27일 오후 3시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축: 단절에서 소통으로(Axis of Peace: Disconnect to Connect)' 전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참여 작가, 문화예술계 인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했다.

이번 전시회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시설인 캠프 그리브스라는 장소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극대화한 전시로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캠프 외곽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길을 시작으로 탄약고, 주변 외부공간 등지에서 정열, 권순관, 양만기, 김기라, 김형규 등 예술가 5인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행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메일(heeyun@gto.

or.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 이어 2차 전시회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전시회에서는 캠프 그리브스와 DMZ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과 이번 전시회의 스케치 등을 담은 영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캠프 그리브스 홈페이지(<http://dmzcamp131.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952-0466)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향후 캠프 그리브스가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가치, 안보교육, 문

화예술 등 활용공간으로 거듭나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 안보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다. 도는 이곳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체험시설로 개조,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9.5 X 9.8 cm